나눔의 소공동체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2010년 12월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90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18-24)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18-24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듯이, 따스한 봄기운을 기다리며 맞이한 한 해의 시작도 어느새 그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의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연말이라는 시기에 더욱 더 분주해 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축하인사와 함께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할지에 대해 바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시기 안에서 오늘 복음은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의 신비를 이야기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과 상처가 하느님의 신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셉을 새로이 보게 됩니다. 분명 어떠한 남자라도 사랑하는 연인이 혼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은 배신으로 얼룩지고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지도 모릅니다.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라고 말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처음에 그에겐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요셉이 이와 같은 음성을 단지 꿈으로써만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계속 고통과 분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하느님의 신비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느님의 신비는 고통과 축복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한 해를 매듭짓게 됩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아파했던 외로움의 시간도 있었을 터이고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을 만큼 기뻐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던 수많은 약속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내 안의 눈으로는 고통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눈물로 기도하였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안의 모습을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 청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으로 다가오신 하느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서 그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제 곧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복음을 통하여 기쁨의 모습보다 고통과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통해 더욱 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시기 안에서 우리는 내안에 머물러 있던 미움과 상처를 보았을 것입니다. 잠시 나는 한해를 매듭지으며 하느님께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수원교구 1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다니엘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집필 시기

다니엘서는 기원전 167년경에서 164년경에 쓰인 묵시문학서입니다.

선포 내용

다니엘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가야 할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겸허만이 가장 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과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립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의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오직 하느님께 충성하여 정의의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성

1. 다니엘과 세 친구(1-6장)
 (1) 바빌로니아 왕국에 등용된 유다 젊은이들(1,1-21)
 (2) 네부카드네자르의 꿈과 다니엘의 꿈풀이(2,1-49)
 (3) 불가마 속의 세 젊은이(3,1-97) (4) 나무에 관한 꿈과 다니엘의 해석(3,98-4,34)
 (5) 벨사차르의 운명(5,1-6,1) (6)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6,2-29)
2. 다니엘이 본 환시(7-12장)
 (1) 네 짐승과 인자의 환시(7,1-28)
 (2) 숫양과 숫염소의 환시(8,1-27)
 (3) 예레미야의 일흔 주간에 대한 해석(9,1-27)
 (4) 네 왕국의 환시(10,1-12,13)
3. 다니엘의 다른 공적들(13-14장)
 (1) 수산나와 두 재판관 이야기(13,1-64)
 (2) 다니엘이 벨의 사제들의 음모를 밝히다(14,1-22)
 (3) 큰 뱀을 죽인 다니엘(14,23-42)

공지사항

-12월 19일 10시 세례, 견진식을 통해 새로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 교우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구역 별로 시작된 판공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뜻 깊은 성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3,14-17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세례성사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단지 세례라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진정한 복음적 삶,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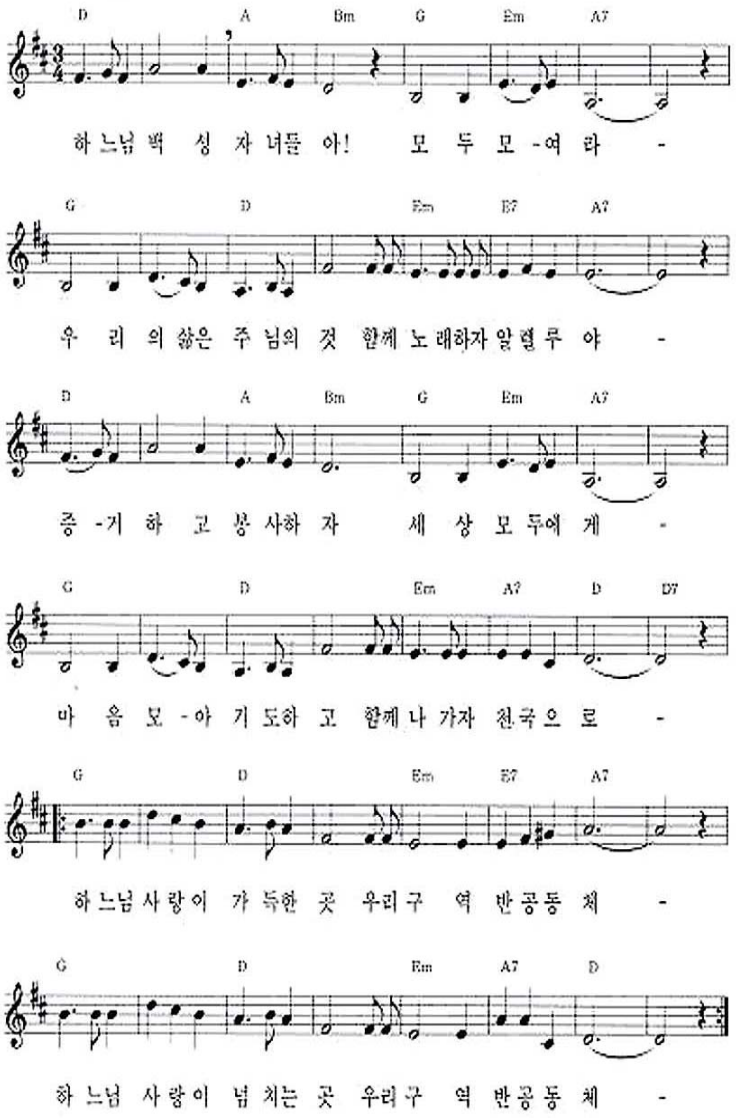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